

홈 > 불교

오늘은 상월결사 2주년..."위기를 희망으로"

정영석 기자 | 입력 2021.11.10 15:32 | 수정 2021.11.11 07:28 | 댓글 0

가 가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앵커

천막 정진을 시작으로 작년 자비순례, 올해 천리순례로 이어진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오늘(11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월결사의 지난 2년은 불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준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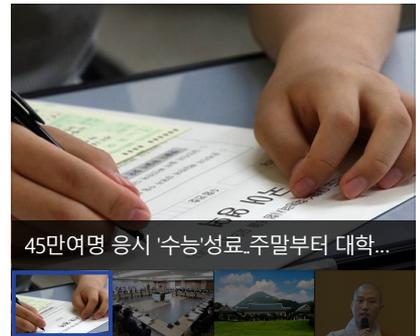
기자

2년 전 흑한 속에서 석 달간 밖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달렸던 아홉 스님.

최신뉴스

- 사회 | 45만여명 응시 '수능'성료..주말부터 대학...
- BBS PLAZA | 김인식 사장, "농어촌 현장의견 적극...
- 정치 | 청와대, "일본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
- 지방사 인터뷰 | [광주BBS 빛고를 아침저녁] 지리...
- 전국 | [코로나19] 제주, 초등학교 잇따라 '집단감...

포토뉴스



인기뉴스

- '제 18회 추억의 총장축제' 18일 개막...비대면
- 경기교육청, 수능일 버스 파업 예고에 촉각..."도
- [전국네트워크] 광주·전남 학생 확진 속출...수능
- 2022 수능, 51만여 수험생...수학 치른뒤 점심시
- 부산 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부정행
-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문선희 작가

유례없는 이 천막 정진에 세상은 주목했고, 경책의 죽비처럼 침체된 불교를 깨웠습니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중이 외호를 자처하며 결사에 동참했고, 이런 자발적 참여 모습은 승가의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호산스님 / 수곡사 주지(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지객): 남의 것이라도 뺏어 먹을 정도로 배고플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느냐.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부대중 밖에서의 어떤 그 기도, 야단법석 그것이 절대적이었죠.]

천막 정진에서 시작된 한국불교 중흥에 대한 염원은 이듬해 자비순례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서울 봉은사에 도착하는 총 511km 거리의 국토종단.

코로나19 사태 속에 변화된 문화적 패러다임을 반영하면서 걸으며 내면에 집중하는 '행선'의 가치도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등장한 '순례단'이란 명칭은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하는 불교'라는 소속감을 깊이 심어줬습니다.

[중화 법타 대중사 / 조계종 원로의원: 부처님께서도 길에서 수행해서 도를 이룬 다음에도 항상 중생제도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상월선원 순례단의 행보는 우리(불교)수행에 좋은 하나의 선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월결사는 이윽고 지난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로 이어졌고...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걷기 명상, 행선을 통해 힐링과 수행 문화 활성화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자승스님 / 상월선원 회주: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삼보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을 했고 순서는 송광사에서 사부대중이 출가를 해서 해인사 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통도사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당시 순례자들이 겪은 18일 일정이 언론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 삶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생활 속 불교'를 몸소 실천했던 순례단의 모습은 숙명이 돼버린 전염병이 상존하는 세상에서 모범적 삶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기련 / 108 천리순례 운영지원단장: 저희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활기찬 불교를 표방하면서 글자 그대로 '만행',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상월결사는 미래 불교가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naver.com

[다른기사 보기](#)

8 HUG "빌라 세입자도 모 바일로 전세보증 가입"



BBS 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시선'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추천
0



반대
0

당신만 안 본 뉴스

"애플 포항유치 이끈 민간네트워크...유치효과 ...
 송가인, 도경완이 함께하는 은해사 '중약 팔공...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
 전국 사찰에 '정청래 규탄' 현수막 걸린다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역대 첫 '톱10' ...
 '제 18회 추억의 충장축제' 18일 개막...비대면 ...
 [단독]"한국 요소난 이렇게 심했어?"...中 당국, ...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
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45만여명 응시 '수능'성
료..주말부터 대학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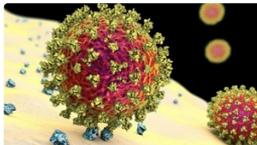
김인식 사장, "농어촌
현장의견 적극 반영..실



청와대, "일본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



[광주BBS 빛고를 아침
저널] 지리산 화염사 빛



[코로나19] 제주, 초등
학교 잇따라 '집단감



서욱 국방장관, 울릉도
찾아 대비태세 점검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